

국내매체 보도 동향

K R E I Q U A R T E R L Y A G R I C U L T U R A L T R E N D S I N N O R T H K O R E A

1 경제일반

◆ 경제일반

북한의 공식 시장은 398개로 조사

- 통일연구원은 위성사진과 탈북자 증언 등을 토대로 북한 전역의 시장을 분석한 결과 공식 시장이 모두 398개로 조사되었음.
 - 도별로는 평안남도가 88개로 가장 많았고 함경북도와 함경남도가 각각 48개였음. 평안남도에서 시장이 많은 것은 인구가 많고 공장·기업소도 많아 비교적 활발히 물품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북한의 공식 시장은 2003년 종합시장 개설 이후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 허가된 곳으로 울타리와 매대, 지붕 등을 설치해 물건을 팔고 있음. 비공식 시장인 '장마당'과 달리 장세(세금)도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시장 판매 품목은 수산물, 당과류, 신발 등 잡화를 비롯해 화장품, 옷, 가전제품, 담배, 조미료, 종자, 돼지고기, 납새(채소), 곡물류, 소금 등이었음.
 - 상품은 대부분 신의주 혜산 무산 나선 등으로 유입된 뒤 평성, 청진, 함흥, 원산 등 대형 도매시장을 거쳐 도시와 군의 소매시장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분석됨.

한국경제, "[북한 포커스] 북한 공식 시장 398곳...평안남도 88개 '최다'", 2016.10.12.

평양의 소비 심리 위축

-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평양에서 자금 경색으로 소비와 상거래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로 자금난이

심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중앙일보, "평양마저 소비절벽..."평양냉면 50% 할인해도 못 사먹어", 2016.10.19.

CIA의 북한 현황자료 발표, 북한의 고령화 사회 진입 및 경제발전 부진

○ 미국 중앙정보국(CIA)는 북한의 고령화 추세, 휴대전화 보급, 경제 상황, 무역 현황에 관한 정보를 북한 현황자료(Fact book)를 통해 발표하였음.

- CIA는 2016년 7월 북한의 인구 2,511만 명 중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9.74%로 추정돼 북한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하였음. 65세 이상 남성이 84만 명, 여성이 160만 명으로 각각 추정됐음.

- 북한에 보급된 휴대전화가 2015년 기준으로 324만 대에 달하였음.

- 1인당 국민소득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 1,800달러(203만 원 상당)로 변화가 없었고, 국내총생산(GDP) 역시 같은 기간 400억 달러(45조 원)로 제자리걸음을 보였음.

- 수출은 2014년 43억 달러(4조 8,000억 원)에서 2015년 41억 달러(4조 6,000억 원)로 감소했고, 수입 역시 같은 기간 55억 달러(6조 2,000억 원)에서 48억 달러(5조 4,000억 원)로 줄었음.

연합뉴스, "북한 휴대폰 324만대...100명당 13대 보유", 2016.10.26.

북한 주민 1인당 연평균 소득, 남한의 1/22 수준

○ 북한 주민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남한의 1/22 수준인 139만 원으로 나타났다.

-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4조 5,120억 원으로 남한(1,565조 8,000억 원)의 1/45 수준이었음. 1인당 GNI는 2015년과 같은 139만 원으로 남한(3,094만 원)의 1/22 수준이었음.

○ 2015년 기준 북한 인구는 2,477만 9,000명으로 남한(5,101만 5,000명)의 절반 수준이었고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12.88명으로 남한(118.46명)의 1/9수준이었음.

- 2015년 남한 경제 규모는 2.6% 성장했지만 북한은 1.1% 줄어들었음. 이는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로 대북 제재가 이어진 탓으로 분석됨. 2015년 북한의 무역 총액은 남한(9,633억 달러)의 1/154 수준인 63억 달러였음.

- 북한의 쌀 생산량은 201만 6,000톤으로 남한(432만 7,000톤)의 절반 수준이었음.

동아일보, "북한 주민 1인당 연평균 소득, 南의 1/22 수준...휴대전화 보유는?", 2016.12.15.

2015년 대북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액은 8,300만 달러

- 2015년 북한으로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순유입액이 8,300만 달러(약 986억 원)로 집계되었음.
 - 미국의소리(VOA)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통계보고서를 인용해 "2015년 FDI 순유입액은 2014년의 약 6,300만 달러보다 30%가량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음.
- 연합뉴스, "작년 외국인 대북투자 8천300만달러...전년 대비 30% 증가", 2016.12.20.

◆ 대외무역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 증가, 석탄 수출 가격 상승

- 최근 북한의 대(對)중국 석탄 수출이 증가하고 가격도 급등하면서 북한의 탄광 채굴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도되었음.
 - 평안남도 소식통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대북 제재로 줄었던 석탄 수출량이 최근 갑자기 늘어나면서 국내 탄광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밝혔음.
 - 소식통은 "지난해(2015년)부터 석탄 수출은 중국 정부의 품질 규제에 따라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고, 대북 제재까지 겹쳐 최상품 석탄도 톤당 40달러에 소량 수출되었다"면서 "하지만 몇 달 전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 2016년 10월에는 톤당 62달러에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말하였음.
 -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3월 초 채택한 결의 2270호는 북한의 석탄·철광석 수출을 금지하면서도 민생 목적 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였음. 그러나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2270호의 빈틈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임.
- 연합뉴스, "북한의 대중 석탄수출 증가, 가격도 1t당 20달러 급등", 2016.10.12.

일부 품목의 중국의 대북 수입액 감소

- 중국이 대북 제재에 시작하였으나 북한으로부터 철광석 수입은 증가하였음.
 - 미국의 소리(VOA)는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인용하여 중국 정부가 지정한 무역 금지 품목의 북중 교역액은 2016년 4월(중국의 대북 제재에 착수 시점) 이후 5개월 간 약 4억 2,000만 달러(약 4,717억 원)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하였다고 보도하였음.
 - 석탄 수입액은 8.9% 감소했으며, 생철(가공되지 않은 무쇠) 수입액도 약 37% 감소하였음.
- 연합뉴스, "중국, 대북 제재에도 북한서 철광석 수입 늘어", 2016.10.13.

북한군, 중국에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북한군이 소형 목조선을 만들어 어민에게 빌려주고 외화 벌이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음.
- 마이니치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서해와 동해 양쪽 항구에 소형 선박 약 3,000척을 보유 하고 있으며 어민들은 3~4명씩 같은 조를 이뤄 군으로부터 선박을 빌려 해산물을 잡음.
 - 북한군 및 경제 관계자는 어민이 해산물을 북한 중개인에게 팔아 얻은 외화 일부를 군에 선박 임대료 명목으로 낸다고 설명하였음.
 - 중개인은 북한 북동부 라선(나선) 등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국 매수업자에게 수산물을 팔아 외화를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마이니치는 북한 어민의 하루 어획량은 20~30톤 정도이며 수산물의 총량은 수만~ 수십 만 톤 규모라고 추정하였음. 북한이 중국에 수산물을 팔아 연간 2억~3억 달러(약 2,267억~3,400억 원)의 외화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였음.

연합뉴스, "북한, 수산물 중국에 팔아 연간 3천억 원 외화벌이", 2016.10.15.

북한의 대중국·러시아 수산물 수출 확대

-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국제 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북한의 대중국·러시아 수산물 수출이 증가했다고 보도하였음.
 - 한국무역협회는 중국 해관총서(세관) 자료를 토대로 북한의 2016년 1~8월 대(對) 중국 수산물 수출액이 약 1억 1,000만 달러(1,236억 원)로 집계되었다고 밝혔음. 이는 전년(6,500만 달러)과 비교해 약 70% 늘어난 수준임.
 - 품목별로는 오징어 등 연체동물 수출액이 8,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새우와 게를 비롯한 갑각류(2,600만 달러), 건조 어류(300만 달러) 순이었음.
- 러시아를 상대로 한 북한의 수산물 수출도 2016년 들어 큰 폭으로 늘어났음.
 - 러시아 연방세관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2016년 1분기 대러시아 수산물 수출액은 약 280만 달러로, 2015년 총 수출액(160만 달러)를 상회했음.

연합뉴스, "북한, 제재속 중국·러시아에 수산물 수출 대폭 늘려", 2016.10.19.

평안북도 앞바다에서 북중 간 밀무역 진행

- 북한과 중국이 평안북도 철산군 앞바다에서 대규모 해상 밀무역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의 북한 소식통은 이날 "안보리 대북 제재가 본격화한 2016년 4월 이후 북한과 중국 배 수십 척이 거의 매일 평북 철산군 앞바다에서 만나 밀무역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음.

- 또한 소식통은 "식량·건설 자재·농수산물·생필품은 물론 석탄과 철광석까지 직접 거래한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북한·중국 평북 앞바다서 대규모 밀무역... 수산물·철광석 등 직접 '배떼기 거래'", 2016.10.21.

2016년 3/4분기 북중 교역액, 전년 대비 3.4% 증가

○ 국제 사회가 대북 제재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으나, 북중 간 교역은 크게 지장을 받지 않고 있음.

-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016년 3/4분기 북중 교역액이 약 15억 5,000만 달러(1조 7,569억 원)로 2015년 대비 약 3.4% 증가하였다고 보도하였음.

- 2016년 3/4분기 기준, 석탄은 북한의 대 중국 수출 품목 1위로, 2억 8,000만 달러(3,173억 원) 어치를 수출하였음.

○ 월스트리트저널(WJS)은 중국으로 수출되는 북한 석탄 가격이 2016년 8월 초 톤당 59달러였으나 2016년 10월 99달러로 급등하였다고 보도하였음. 톤당 석탄 가격 증가가 북한의 대 중국 석탄 수출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음.

○ 2016년 3/4분기 기준, 북한의 대 중국 수출액 2위 품목은 남성용 코트(8,700만 달러), 3위는 오징어 등 연체동물에 해당하는 수산물(6,700만 달러)였음.

○ 북한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화물 자동차로, 3,100만 달러 상당을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음. 휴대전화(1,390만 달러), 자동차료처리기계(1,370만 달러)는 각각 2위, 3위였음.

- 2016년 3/4분기 북한의 대 중국 수출액은 총 7억 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 수입액은 8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2% 늘어났음.

연합뉴스, "북중 3/4분기 교역액, 전년 대비 3.4% 증가...석탄수출도 5% 늘어", 2016.10.26.

2016년 3/4분기 북미 교역액, 전년 대비 97% 감소

○ 북한과 미국의 2016년 교역액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음.

- 미국의소리(VOA)는 미국 상무부 통계를 인용해 2016년 3/4분기(7~9월) 북미 간 교역액이 약 4만 4,000달러(약 5,000만 원)로 전년 대비 97% 감소하였다고 밝혔음.

- 2016년 1~3분기 북미 교역액 총합은 6만 8,00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하였음. 특히 민간 기구의 구호·자선 지원 물품은 2016년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됐음.

연합뉴스, "2016년 3분기 북미 교역액, 전년 대비 97% 감소", 2016.11.08.

미국과 중국, 북한의 석탄 수출 금지 논의

- 미국과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안에 북한산 석탄 등의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해졌음.
 - 북한은 결의안 2270호에도 불구하고 석탄과 철광석을 '민생용'을 내세워 수출하면서 이번 새 결의안은 민생 목적임을 입증하는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경제, "북한 돈줄' 석탄수출 차단...미·중, 새 대북 제재안 합의", 2016.11.24.

중국, 북한산 석탄 수입 일시 중단

-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여 북한산 석탄 수입을 일시 중지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안보리 결의 2321호 시행을 위하여 2016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음.
 - 상무부는 홈페이지에서 "유엔 안보리 2321호 결의 집행을 위하여 중국 대외무역법에 따라 북한 원산지의 석탄 수입을 일시 정지한다"면서 "다만 공고 집행일 전에 이미 발송했거나 이미 중국 세관에 도착한 경우는 통관을 허가한다"고 밝혔음.
 -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는 2016년 말까지 북한의 석탄 수출액이 5500여만 달러 또는 수출량 100만 톤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유엔은 2017년부터 북한산 석탄의 연간 수출 규모 상한을 4억 90만 달러(약 4,704억 원) 또는 750만 톤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2015년 북한이 수출한 석탄의 38%에 해당함.
 - 수출 상한이 잘 지켜지는지를 감시하는 절차도 강화해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는 국가는 매월 수입량을 30일 이내에 북한제재위원회에 통보해야 함.
- 조선일보, "중국 대북 제재 이행...북한산 석탄 수입 일시 중지", 2016.12.11.

중국, 북한산 구리 수입 중단

- 중국은 2016년 12월 11일부터 구리, 니켈, 은, 아연 등에 대해서도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음.
 -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수입 중단 공고를 내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으로 나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21호 시행을 위하여 2016년 12월 24일부터 이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음.
 - 중국 정부는 20여 일 간 한시적으로 석탄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힌 반면 구리 니켈 등 광물 수입 금지 조치는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음.
- 동아일보, "중국, 북한산 석탄 이어 구리도 수입 중단", 2016.12.24.

북한, 대중 비료 수입 증가

○ 2016년 11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비료의 양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음.

- 미국의소리(VOA)는 중국 해관총서 통계를 인용하여 2016년 11월에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는 313톤으로, 전년 대비 5배 가량 늘어났다고 밝혔음. 북한이 2016년 1~11월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량은 총 15만 8,000여 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7만 313톤보다 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음.

연합뉴스, "북한, 중국산 비료수입 급증..."11월 수입량 작년의 5배", 2016.12.28.

◆ 대외교류 및 경제협력

북한-러시아 간 친선 확대 의지 표명

○ 북한이 러시아와의 수교 68주년을 맞아 양국의 역사적 친선·협조를 강조하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음.

- 노동신문은 '총계 발전하는 조로(북러)친선협조관계'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조로친선협조 관계를 더욱더 확대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드팀없는(흔들림 없는) 의지"라고 밝혔음.

연합뉴스, "북한 "조러 친선확대 흔들림없는 의지"...수교 68주년", 2016.10.12.

북한, 람사르협약(습지보전협약) 가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추측

○ 북한이 람사르협약에 가입해 금강산 삼일포 일대 등을 보호 습지로 지정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조선의 오늘' 웹사이트는 "지난달(2016년 9월) 4일부터 7일까지 국토환경보호성 주최로 금강산에서 습지보호 강습(세미나)이 진행되었다"고 보도하였음.

○ 세미나에는 솔롱고 쿠렐바티르 람사르협약 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관과 빌리 랑에 한스 자이델재단 동북아 담당관, 이경심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부장, 북한 환경민족조정위원회·국가과학원 생물다양성연구소·강원도 국토환경보호 부문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가하였음.

- 매체는 "강습에서 '습지와 물 그리고 습지에 관한 협약', '북한에서의 습지보호와 한스자이델재단의 사업', '람사르 지역 제정에 대해' 등의 발표가 진행됐고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람사르 목록에 등록하는 절차와 등록 양식 기입 방법에 대한 실기 강습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북한, '습지보전협약' 가입 시동거나...금강산서 세미나 개최", 2016.10.15.

◆ 기타

신두만강대교의 부분 개통

- 2016년 1월 30일 중국 지린(吉林) 성 훈춘(琿春)의 두만강 하류에 건설 중인 신(新)두만강 대교가 부분 개통하였음.
 -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훈춘시는 훈춘과 북한 함경북도 나선시 원정리를 잇는 신두만강대교의 4차로 중 2차로의 부분 개통식을 가졌음. 2014년 9월 착공한 지 2년 만임.
 - 1억 4,700만 위안(약 243억 원)을 투입해 건설한 신두만강대교는 북한 나선경제특구로 이어지는 주요 접점으로 북중 교역의 새 인프라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동아일보, "중국, 훈춘-나진 잇는 '신두만강대교' 서둘러 개통...배경은?", 2016.10.02.

북한 홍수 피해 지역의 변전소 및 송전선로 복구 주장

- 북한 매체는 함경북도 홍수 피해 지역의 변전소와 송전선로가 모두 복구되었다고 주장하였음.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16년) 9월 27일 무산군과 회령시, 연사군 등 피해 지역의 변전소들이 모두 복구되고 전주(전봇대)복구는 95%계선(수준)으로 마감 단계에 들어서 전 지역에 대한 송전 계통이 모두 정상 가동하게 되었다"고 보도하였음.
- 연합뉴스, "북한매체 "홍수피해 지역 변전소와 송전선로 모두 복구"", 2016.10.05.

중국 훈춘시, 나진항과 연결할 국제 버스 터미널 착공

- 중국은 북한 나진항과 고속도로를 통해 연결되는 지린(吉林) 성 훈춘(琿春) 시에 대규모 국제 버스 터미널을 착공하였다고 보도하였음.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훈춘시는 발표자료를 인용해 2016년 10월 10일 국제버스여객터미널 착공식이 개최하였다고 보도하였음.
 - 국제 버스 터미널은 훈춘시 북쪽 약 3.5km 지점에 들어서며 2015년 완공된 훈춘고속철도역 바로 북동편에 조성될 예정임. 부지면적은 3만 4,300㎡에 총 투자비 1억 4,482만 위안(약 243억 원 상당)을 투입해 2017년 완공할 계획임.
 - 훈춘시는 "새로 들어설 버스 터미널이 지린 성 내 중·단거리 여객은 물론 인근 헤이룽장(黑龍江) 성 그리고 랴오닝(遼寧) 성의 주요 도시 간 여객 운수도 맡는다"면서 "북한과 중국, 중국과 러시아 간 국제 여객을 실어 나를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음.
- 연합뉴스, "중국, 훈춘에 나진항 연결할 국제버스터미널 착공", 2016.10.15.

북한 수해 지역의 설사병·영양실조 어린이 환자 증가

- 북한 함경북도 지역의 수해로 설사병을 앓는 어린이가 한 달 만에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북한 수해 긴급 대응계획' 보고서를 통해 황해북도 지역에서 2016년 9월 한 달 동안 5세 미만 어린이 설사 환자 수가 전 달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유엔은 중증 급성영양실조 증세로 2016년 9월 병원을 찾은 어린이가 홍수 피해가 발생하기 전인 2016년 8월과 비교해 4배 가량 많아졌다고 밝혔음.
- 매일경제, "북한 수해로 설사병·영양실조 어린이 4배 증가", 2016.10.15.

북한 수해 지역 내 설사병·급성 호흡기 환자 증가

- 세계보건기구(WHO)는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이후 설사병과 급성 호흡기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였음.
- WHO는 북한 당국의 자료를 인용한 '북한 수해 대응 상황 보고서'를 통해 "수해 지역에서 설사병과 급성 호흡기 질환 환자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음. 다만 WHO는 2016년 10월까지 설사나 급성 호흡기 질환 등에 의한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음.
- WHO는 북한 당국이 수해 지역과 인근 시·도·군에서 전염병 보고·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하였음. 북한은 수해 지역에 긴급 진료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하며 종합적인 질병 대응 전략을 수립해 활동하고 있음.
- 연합뉴스, "WHO "북한 수해지역서 설사병·급성호흡기질환자 늘어"", 2016.10.19.

북한 고려항공의 취항 국가, 중국·러시아 2곳으로 축소

- 북한 고려항공이 취항한 나라는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여파로 중국과 러시아, 두 곳만 남았다고 보도되었음.
- 미국의소리(VOA)는 쿠웨이트 당국이 고려항공의 입항을 금지하여 북한-중국-쿠웨이트 노선이 폐지될 실정이라고 전하였음. 쿠웨이트에 앞서 파키스탄 정부도 2016년 7월부터 고려항공에 착륙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하였음. 태국 정부는 2016년 4월 각료 회의를 통해 대북 결의 2270호를 승인하자서 고려항공이 먼저 운항 중단 결정을 내렸음.
- 연합뉴스, "북한 고려항공 취항국, 대북 제재로 중·러 2곳만 남아", 2016.10.25.

최근 10년 간 북한의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1,533명으로 집계

- 북한에서 최근 10년 간 발생한 대규모 자연재해로 총 1,533명이 사망하였다고 보도되었음.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벨기에 루뱅대학 재난역학연구소가 발표한 '2015년 재난 통계 분석 보고서'와 '재난통계자료'을 인용해 지난 2007년 이후 북한에서 총 10건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도하였음.
- 10건 중 7건은 홍수였으며, 2007년과 2016년 홍수로만 각각 610명, 538명이 목숨을 잃었음. 태풍에 따른 사망자도 2012년 59명, 2016년 60명이었음.
- 북한에서 특히 홍수 피해가 큰 이유는 농지 확장을 위하여 산림을 훼손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음.

연합뉴스, "북한 최근 10년간 대규모 자연재해로 1천533명 사망", 2016.11.22.

중국, 열차 활용하여 북한에 연료 공급

- 중국이 송유관을 통한 대북 원유 공급에 더해 열차를 통해서도 북한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하였음.
- 중국의 한 대북소식통은 RFA에 "단둥 시내의 중국군(軍) 연료(유류) 공급 기지에서 철도를 통해 비밀리에 북한에 유류가 공급되고 있다"고 전하였음.
- 소식통은 다만 유류 수송 열차가 북한으로 직접 들어가는지 중간에 다른 운송 수단에 옮겨지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연합뉴스, "'중국, 열차 통해서도 북한에 연료 공급'〈RFA〉", 2016.11.29.

이집트 오라스콤, 북한 통신 자회사 폐쇄

- 이집트 통신 회사인 오라스콤이 북한 내 금융 자회사 오라뱅크(Orabank)를 폐쇄하기로 하였음.
- 이집트 일간 데일리뉴스이집트에 따르면 2016년 12월 4일 오라스콤 텔레콤 미디어&테크놀러지(OTMT)은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로 인해 북한의 오라뱅크의 폐쇄를 결정하였다고 밝혔음.
- 오라스콤은 폐쇄 절차에 따라 오라뱅크의 모든 현금과 유동성 자산을 오라스콤 자회사로 옮길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오라스콤은 북한 내 이동통신사인 '고려링크'는 미국의 제재에도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전하였음.

매일경제, "이집트 오라스콤, 북한 통신자회사 폐쇄...휴대폰 어쩌나", 2016.12.05.

북한의 고려링크, 양호한 2016년 3/4분기 실적

- 이집트 통신회사인 오라스콤의 북한 합작 휴대폰 사업 실적이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되었음.

-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회계법인 딜로이트가 발표한 오라스콤의 3/4분기 보고서를 인용하여 2016년 9월 30일 기준 고려링크의 순자산은 4억 9,000만 달러(5,740억 원)였으며 2015년 말보다 32% 증가하였다고 보도하였음.
- 딜로이트는 비용과 세금을 제외한 고려링크의 2016년 3/4분기 이익이 6,400만 달러(749억 원)에 달한다며 "2분기 누적 세후 이익보다 약 50% 증가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 그러나 오라스콤은 북한 당국의 비협조와 환율 문제로 북한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외부로 반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북한, 휴대전화 사업자 고려링크 3분기 실적호조", 2016.12.07.

2 식량사정 및 식량 가격추이

북한 수해 지역의 쌀값 안정세로 전환

- 북한의 북부 지방 쌀값이 안정세를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언론 매체인 아시아프레스는 2016년 9월 30일 기준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쌀 1kg의 가격이 북한 돈 4,300원, 옥수수는 1kg에 1,300원에 거래되었다고 밝혔다.
 - 함경북도 회령시와 온성군 남양지구의 최근 쌀 1kg 가격은 약 8,000원, 옥수수는 1kg에 2,000원까지 상승하였으며, 이는 수해로 도로와 철도가 차단되어 유통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임.

연합뉴스, "북한 수해지역 쌀값 다시 안정세...한때 2배로 급등", 2016.10.02.

북한의 식량 생산량 증대와 북한 당국의 인센티브 제도 미이행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 식량 생산량이 늘었음에도 북한 당국이 인센티브 제도(현물 분배)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아 농민 반발이 크다고 보도하였음.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2016년 감자농사 수확치는 1정보(9,917㎡)당 평균 28~30톤으로 국가 알곡 생산 계획량(1정보당 26톤)을 초과한 수준"이라며 "그러나 농민들에게 더 차례진(배당된) 몫은 없다"고 밝혔다.
 - 자강도의 소식통도 지금(2016년 10월)까지 실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 알곡 수확량이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100만 톤의 식량을 더 확보하게 된다면 "중앙에서 알곡 생산량과 상관없이 농장원 1인당 하루 550g으로 식량 배급을 주라는 지시를 내려보냈다"고 주장하였음.

-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가족 영농 성격이 강한 '분조도급제'를 실시하며 약속한 여유 식량 처분권 부여를 통한 현물 분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연합뉴스, "북한, 식량생산량 늘었는데 인센티브 약속은 공수표", 2016.10.06.

북한의 기아위험도, 위험 수준인 것으로 발표

- 미국의 민간단체인 세계식량정책연구소(IFPRI)가 2016년 북한의 기아 상태가 세계에서 21번째로 위험한 수준이라고 보도되었음.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IFPRI의 '2016 세계 굶주림 지수(Global Hunger Index)' 보고서를 인용하여 북한 주민 10명 중 4명꼴로 건강을 유지할 만큼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위험한 식량 부족 상태"라고 지적하였음.

- 굶주림 지수는 국민의 영양 상태, 저체중 어린이 비율, 5세 이하 사망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치가 높아질수록 상황이 좋지 않음을 나타냄.

- 지수가 30보다 높으면 식량 상태가 '매우 위험한 수준', 20~30은 '위험한 수준', 10~20은 '심각한 수준'으로 분류됨.

- IFPRI가 발표한 북한의 2016년 굶주림 지수는 28.6점으로 1990년의 점수(16.2점)보다 위험도가 11.4점 높아졌음.

-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전체 인구의 41.6%가 영양실조로 1990년의 21%, 2010년의 32%보다 크게 나빠졌음. 5세 이하 유아의 저체중 비율도 2010년의 21%보다 더 나빠져 27.9%로 분석됐고 5세 이하 사망률은 2.5%를 기록하였음.

연합뉴스, "美연구소 "북한 기아위험 세계 21위"", 2016.10.12.

북한의 3/4분기 일일 식량배급량은 300g으로 파악

- 북한이 2016년 3/4분기(7~9월) 주민 한 명당 하루 평균 300g의 식량을 배급하였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하였음.

- 세계식량계획(WFP)은 "이는 2016년 들어 최소로,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600g)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북한당국이 목표로 하는 양(573g)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음. 3/4분기 배급량은 2분기 배급량(360g)보다 17%, 1분기 배급량(370g)보다 19% 줄어들었음.

연합뉴스, "북한 3분기 하루 배급량 300g...2016년 들어 최소", 2016.11.02.

FAO, 북한 식량부족국으로 재지정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을 2015년에 이어 '식량부족 국가'로 재지정하였음.

-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FAO가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이라는 2016년 4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식량 부족 국가로 지정되었다고 보도하였음. 보고서는 "북한이 2016년 외부 지

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량이 69만 4,000톤에 이르지만, 지난(2016년) 10월 기준 23%가량인 16만 3,000톤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고 말하였음.

- FAO 크리스티나 코슬렛 동아시아 담당관은 "2016년 8월 말과 9월 초 함경북도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농경지 2만 7,000헥타르가 훼손되면서 쌀과 옥수수가 큰 피해를 보았다"고 설명하였음.

연합뉴스, FAO "북한 식량부족국 재지정...2016년 식량부족분 77% 미확보", 2016.12.09.

북한, 2016년 곡물 생산량 7% 증가

- 북한의 쌀 등 곡물 생산량이 2015년보다 다소 늘어났지만, 식량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로 추정되었음.
- 농촌진흥청은 북한 지역의 기상, 병해충 발생 및 비료 수급 상황, 원격 탐사 결과 등을 종합 분석한 '2016년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추정 발표하였음.
 -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북한의 곡물 총 생산량은 481만 톤으로, 2015년(450만 톤 추정)보다 약 7% 증가하였음.

- 작물별로는 쌀 생산량이 2015년 대비 10% 증가한 222만 톤으로 추정되었음.
 - 옥수수(170만 톤), 감자(55만 톤), 보리(17만 톤) 등도 적게는 4%에서 최대 10%까지 생산량이 늘었음. 다만 콩류 및 기타 잡곡은 일부 지역에 가뭄이 발생해 전년 대비 6% 가량 줄어든 17만 톤으로 추정되었음.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보고한 2016년도 북한의 식량 수요량은 549만 5,000톤임. 이에 따라 북한은 2016년 생산된 곡물을 모두 소진하고도 약 69만 톤가량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었음.
 - 북한의 하루 곡물 소비량은 약 1만 1,000톤, 한 달에 약 33만 톤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약 두 달 치 식량이 부족한 셈이라고 농진청은 설명하였음.

연합뉴스, "북한 2016년 곡물생산량 7% 증가...식량 부족은 여전", 2016.12.21.

3 농림수산 일반

북한산 송이, 중국산으로 바뀌어 한국에서 일부 유통

- 북한산 송이버섯이 중국산으로 둔갑되어 우리나라에도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에서 1kg당 200달러(약 22만 8,000원)에 거래되는 1등급 북한산 송이는 우리나라의 모 백화점에서 1kg당 40만 원(350달러)에 팔렸고 추석에는 최고 80만 원(700달러)까지 상승하였음.
- 북한의 송이 산지는 함경북도 회령시와 청진시 부윤 구역, 칠보산, 함경남도 신포시 일대로 알려졌음.

연합뉴스, "북한산 송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한국서도 유통", 2016.10.17.

북한, 미얀마에 농업 지원 제안

○ 북한이 국제 사회의 제재로 고립 위기에 처하자 미얀마에 농업 지원을 제안하는 등 관계 개선에 나섰다고 전해졌음. 미얀마는 북한의 제안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코트라 양곤 무역관의 보고서 '북한, 미얀마에 관계개선 제스처'를 인용하여 미얀마 주재 북한대사가 2016년 6월 농업관개부 장관에게 작황이 좋은 벼 품종 지원을 제안하였다고 보도하였음.
- 북한은 또 미얀마의 상습 수해 지역에 댐과 저수지를 건설하는 치수 사업도 제안하였음.

연합뉴스, "북한, 미얀마에 농업지원 제안...고립탈피 의도", 2016.12.15.